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9.(월) / (총 21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이 동 우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7,382명이며, 이 중 166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 8.(일) 0시 기준	188,518	7,134	130	6,954	50	181,384	19,376	162,008
3. 9.(월) 0시 기준	196,618	7,382	166	7,165	51	189,236	17,458	171,778
변동	+8,100	+248	+36	+211	+1	+7,852	-1,918	+9,770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중	7,165	101	86	5,515	7	12	18	23	6	129	24	22	101	5	3	1,036	74	3
격리해제	166	29	10	21	2	3	1	1	0	22	3	3	1	2	1	57	9	1
사망	51	0	0*	35	0	0	0	0	0	1	1	0	0	0	0	14	0	0
합계 (전일대비)	7,382 (248)	130 (10)	96 (-1)	5,571 (190)	9 (0)	15 (2)	19 (1)	24 (0)	6 (3)	152 (11)	28 (1)	25 (1)	102 (4)	7 (0)	4 (0)	1,107 (26)	83 (0)	4 (0)

※ 3월 8일 0시부터 3월 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기존 환자(사망자) 소관 정정 (부산→경북) 에 따른 수정

- 전국적으로 약 79.7%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20.3%이다.

지역	누계	주요 집단발생 사례 (접촉자, 기존해외유입관련 등 포함)		기타*	신규
		명 (%)	세부 내용		
서울	130	85 (65.4%)	은평성모병원 관련(14명), 성동구 아파트 관련(13명), 종로구 관련(10명), 신천지 관련(5명) 등	45 (34.6%)	10
부산	96	69 (71.9%)	온천교회 관련(34명), 신천지 관련(11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6명), 해운대구 성당 관련(6명), 부산 진구 학원 관련(4명), 대남병원 관련(1명) 등	27 (28.1%)	-1
대구	5,571	4,582 (82.2%)	신천지 관련(4,007명), 확진자 접촉자(573명), 대남병원 관련(2명)	989 (17.8%)	190
인천	9	5 (55.6%)	신천지 관련(2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 (1명)	4 (44.4%)	0
광주	15	10 (66.7%)	신천지 관련(9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5 (33.3%)	2
대전	19	10 (52.6%)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 관련(2명)	9 (47.4%)	1
울산	24	12 (50.0%)	신천지 관련(12명)	12 (50.0%)	0
세종	6	6 (100.0%)	운동시설 관련(5명), 신천지 관련(1명)	0 (0.0%)	3
경기	152	118 (77.6%)	신천지 관련(23명), 수원 생명샘교회 관련(10명), 분당제생병원 관련(14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6명) 등	34 (22.4%)	11
강원	28	15 (53.6%)	신천지 관련(15명)	13 (46.4%)	1
충북	25	18 (72.0%)	신천지 관련(7명), 괴산군 장연면 관련(10명), 확진자 접촉자(1명)	7 (28.0%)	1
충남	102	92 (90.2%)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92명)	10 (9.8%)	4
전북	7	4 (57.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신천지 관련(1명)	3 (42.9%)	0
전남	4	2 (50.0%)	신천지 관련(1명), 기존 해외유입 관련(1명)	2 (50.0%)	0
경북	1,107	798 (72.1%)	신천지 관련(492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명), 봉화 푸른요양원(51명), 성지순례 관련(49명), 칠곡 밀알사랑의집 관련(25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경산 참좋은재가센터(14명) 등	309 (27.9%)	26
경남	83	55 (66.3%)	신천지 관련(29명), 거창교회 관련(10명), 한마음창원 병원 관련(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7명), 부산 온천 교회 관련(2명)	28 (33.7%)	0
제주	4	- -		4 (100.0%)	0
합계	7,382	5,881 (79.7%)	신천지 관련 4,617명(62.5%)	1,501 (20.3%)	248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현재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전파는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계속 유지·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와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확산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경기, 서울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이들 지역은 주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 특히, 이러한 소규모 사례가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 (기저질환자 다수), 사회복지시설(고령의 어르신 다수)이나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시설, 다중이용실내 시설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 * 예) ① (의료기관) 서울 은평성모병원, 경기 분당제생병원, 경북 청도대남병원,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등
- ② (사회복지시설) 경북 봉화푸른요양원, 경산 제일실버타운, 참좋은재가센터 등
- ③ (종교시설) 신천지 관련, 부산 온천교석, 경기 수원생명샘교회, 경남 거창교회 등
- ④ (다중이용실내시설) 천안시 등 운동시설, 창녕 동전노래방 등

□ 최근 임신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7명(대구 6명, 부산 1명) 발생하여, 관련된 사항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와 관련되어 아직까지 확립된 정보와 근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주로 호흡기 계통에서 비말과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 상, 임신부에서 혈액이나 기타 출산 과정 등을 통해 태아로 전파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양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 다만, 중국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중증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우리나라에서도 10세 미만 환자는 대부분 감염된 부모와의 접촉으로 인한 66명(0.9%)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중증으로 이환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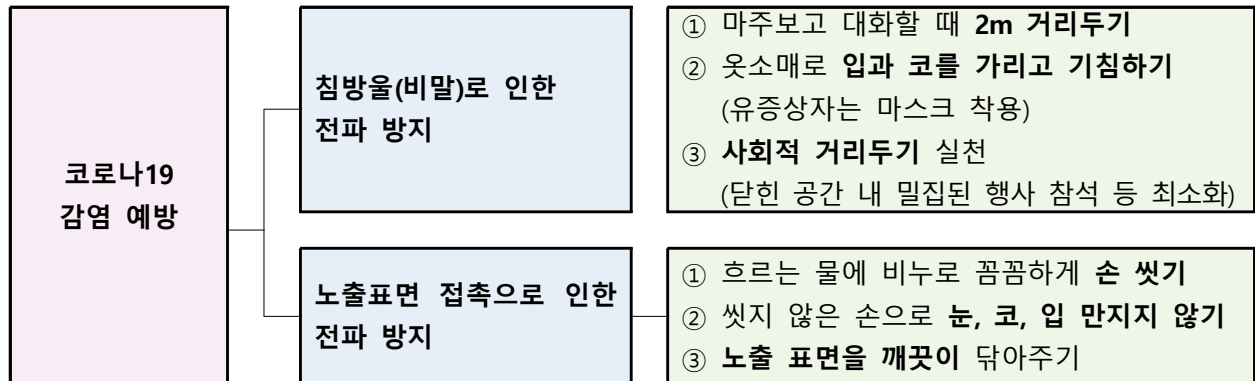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국외로부터의 추가유입 억제 조치 모두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총 96개국에서 10만 1천여 명이 확진되었고, 3천 7백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3.9일 보고일 기준, 국가 수에는 영토·지역 등도 포함, 이하 동일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는 총 53개국이며, 중국에서의 발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지역사회 전파 및 집단 발생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 특히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에서도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발생 및 유행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별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 국내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강화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전 세계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 공유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면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파 양식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



-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두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아울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특히 단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집 안에 머물 때에는 ① 충분한 휴식, ② 적절한 운동 ③ 균형잡힌 식생활, ④ 위생수칙 준수, ⑤ 주기적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 노출표면 접촉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 또한,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① 콜센터 (☎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 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임신부 및 신생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확진자 일별 추세 (3.9일 0시 기준, 7,382명)



※ 2.20일 이전은 해당일별 확진자수, 2.21일 이후는 해당일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되는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오전9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2일은 전일 오전9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 수 증가분, 3.3일부터는 전일 0시부터 해당일 0시까지의 환자수 증가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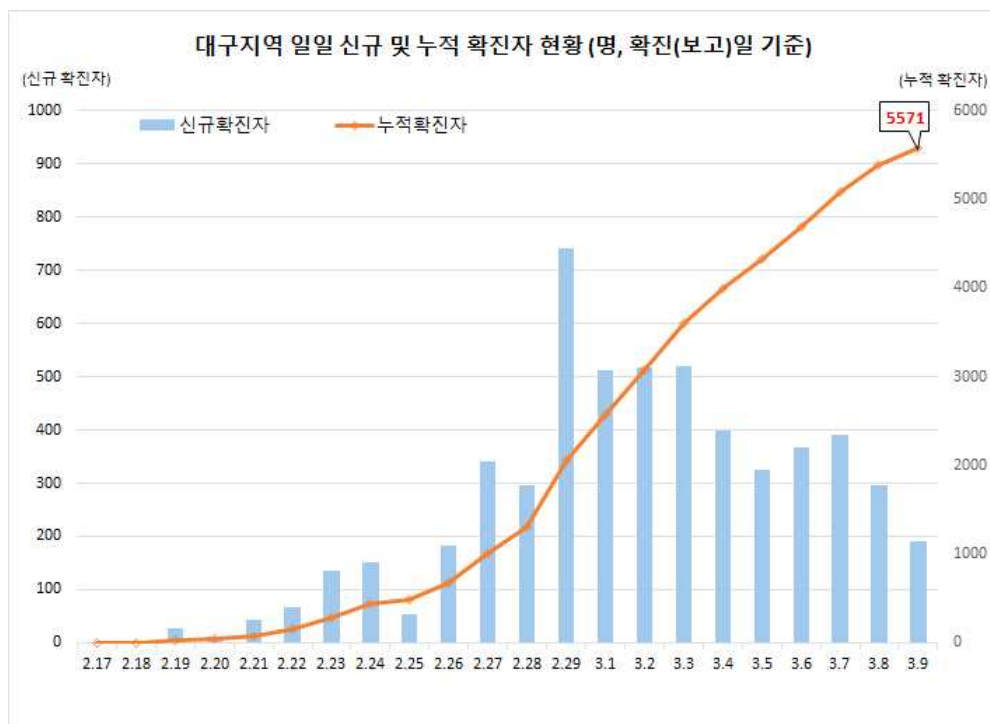
2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3.9일 0시 기준, 7,382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130	(1.76)	1.3	경기	152	(2.06)	1.1
부산	96	(1.30)	2.8	강원	28	(0.38)	1.8
대구	5,571	(75.47)	228.6	충북	25	(0.34)	1.6
인천	9	(0.12)	0.3	충남	102	(1.38)	4.8
광주	15	(0.20)	1.0	전북	7	(0.09)	0.4
대전	19	(0.26)	1.3	전남	4	(0.05)	0.2
울산	24	(0.33)	2.1	경북	1,107	(15.00)	41.6
세종	6	(0.08)	1.8	경남	83	(1.12)	2.5
				제주	4	(0.05)	0.6
총합계					7,382	(100.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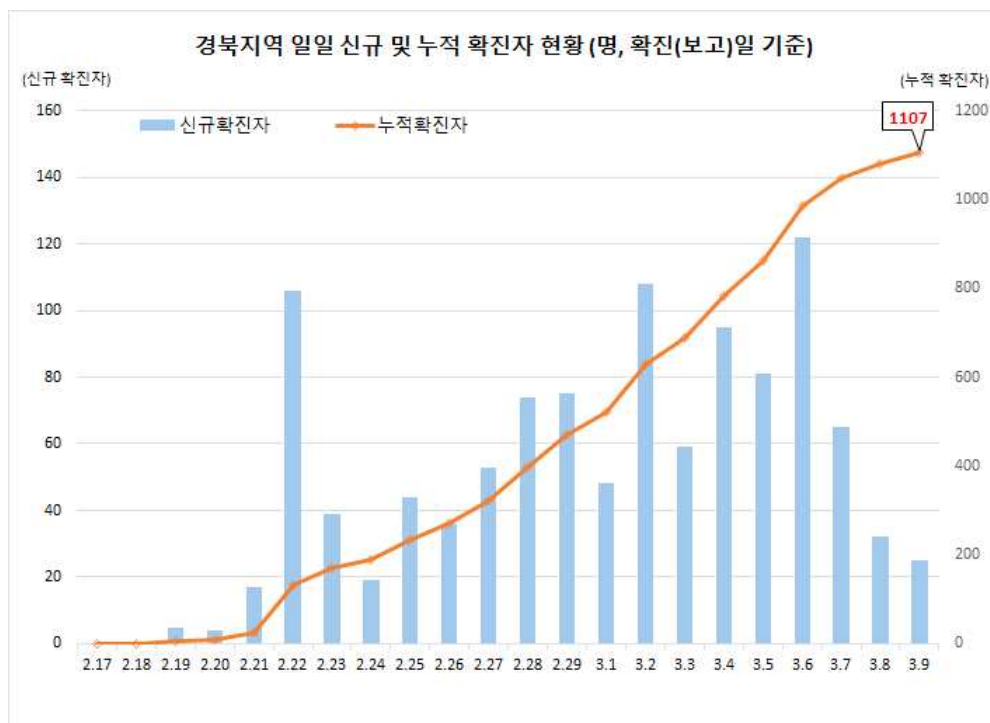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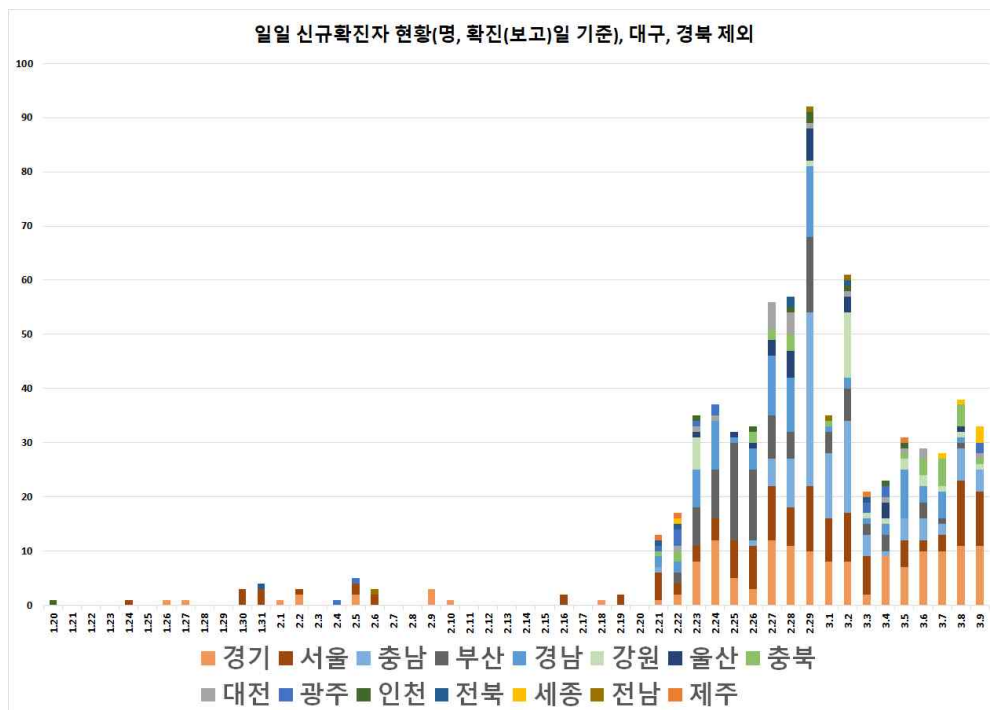


경북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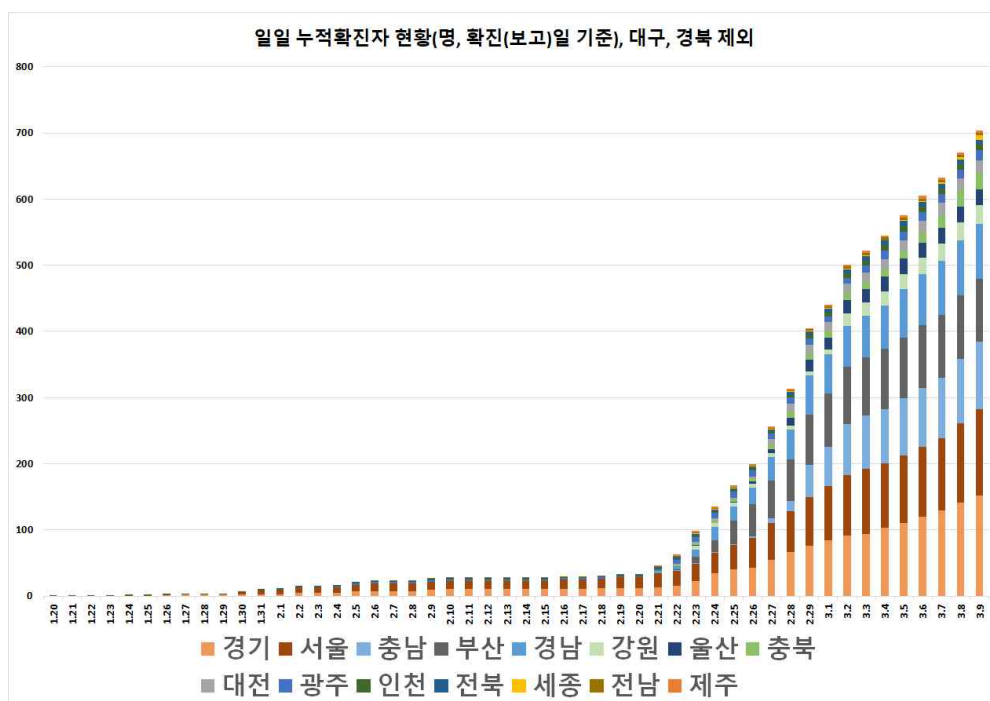


<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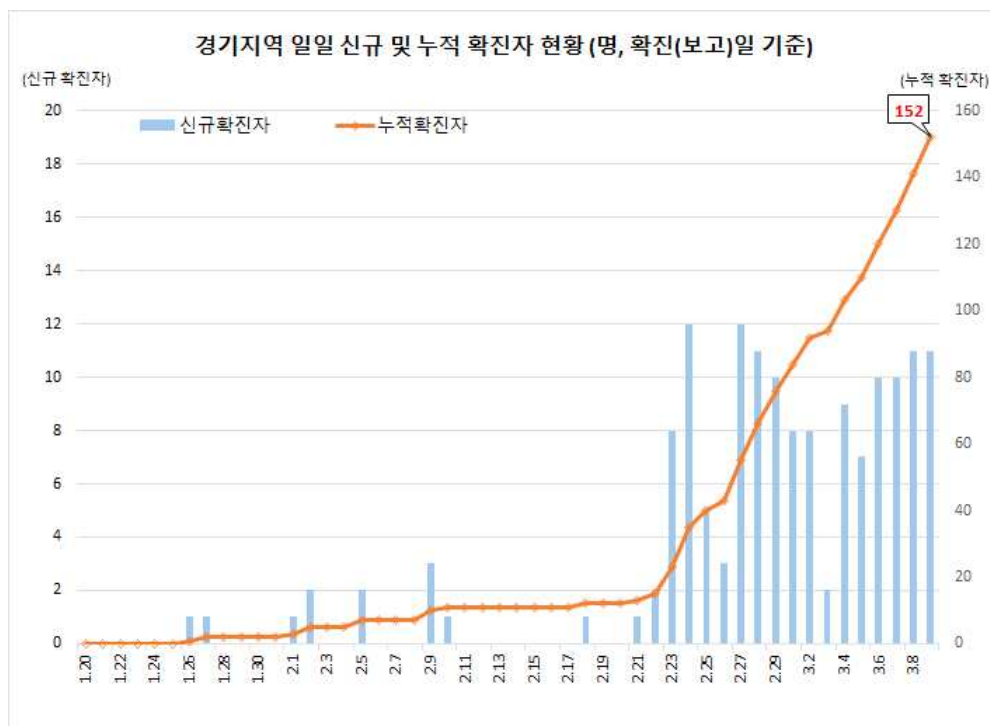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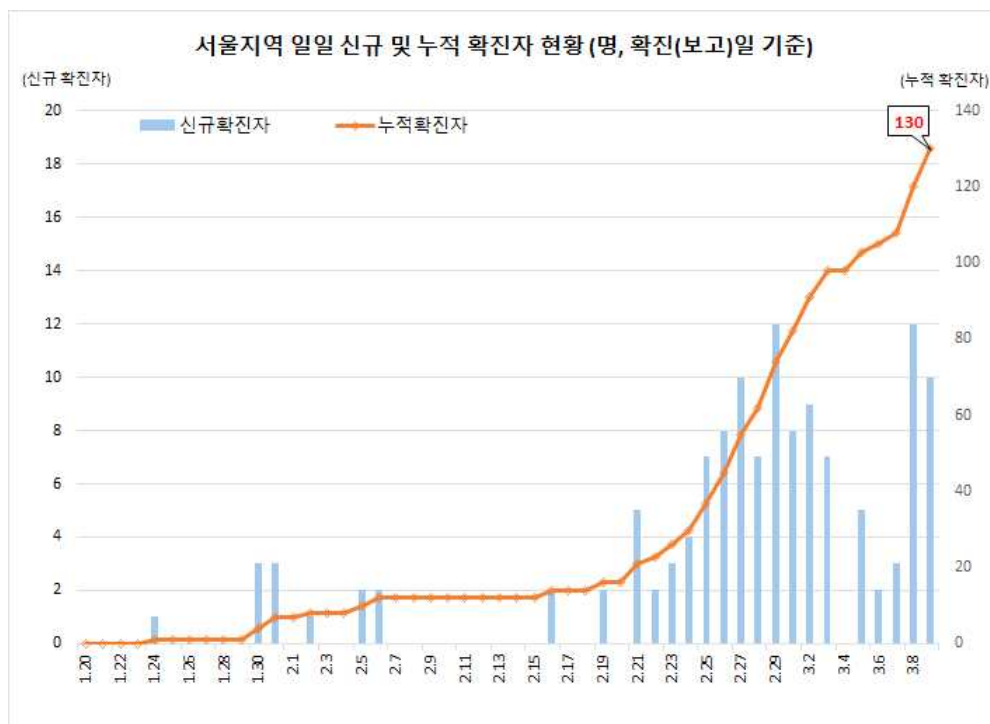


< 경기/서울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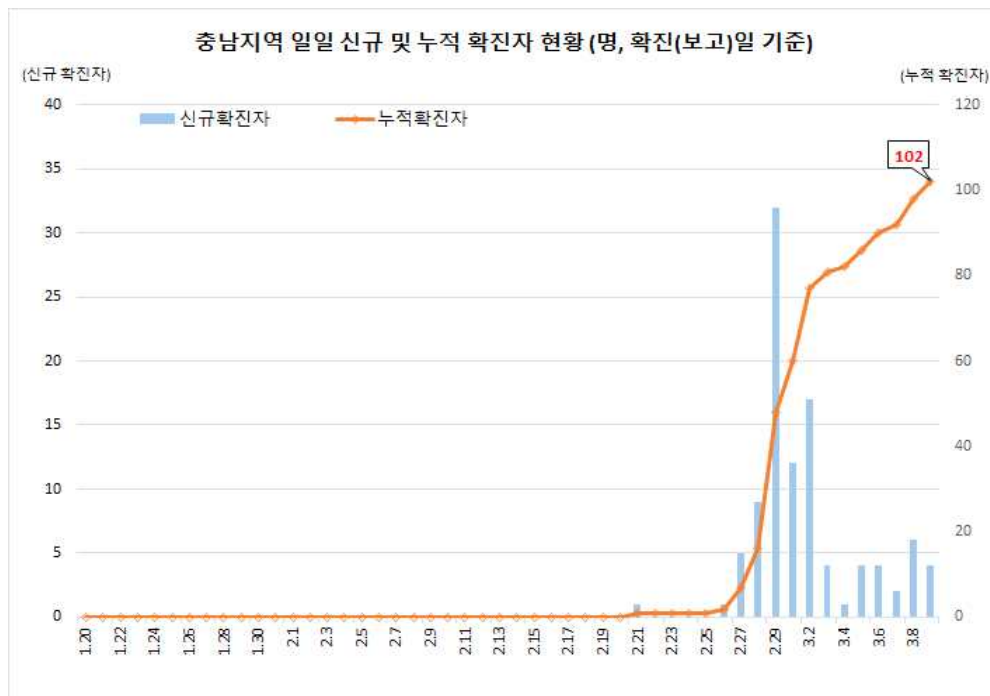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 충남/부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충남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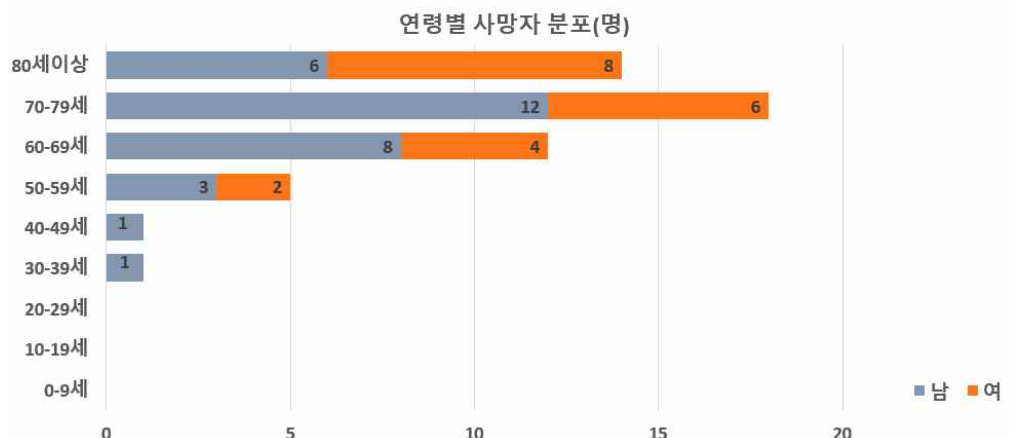
③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3.9일 0시 기준, 7,382명)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7,382 (100.0)	51 (100.0)	0.7
성 별	남성	2,799 (37.9)	31 (60.8)	1.1
	여성	4,583 (62.1)	20 (39.2)	0.4
연 령	80세 이상	216 (2.9)	14 (27.5)	6.5
	70-79	438 (5.9)	18 (35.3)	4.1
	60-69	916 (12.4)	12 (23.5)	1.3
	50-59	1,391 (18.8)	5 (9.8)	0.4
	40-49	1,005 (13.6)	1 (2.0)	0.1
	30-39	779 (10.6)	1 (2.0)	0.1
	20-29	2,190 (29.7)	0 (0.0)	-
	10-19	381 (5.2)	0 (0.0)	-
	0-9	66 (0.9)	0 (0.0)	-

<확진자 분포>



<사망자 분포>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출처) WHO Situation Report(3.8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 전세계 확진환자 총 105,586명(신규 3,656명)

- (중국) 80,859명 발생(사망 3,100명)

- (중국 외) 101개 국가/영토/지역(신규 8)에서 24,727명 발생(사망 484명)

국가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감염전파 분류*
서태평양			
한국	7,134	50	지역감염
일본	455	6	지역감염
싱가포르	138	0	지역감염
말레이시아	93	0	지역감염
호주	74	3	지역감염
베트남	21	0	지역감염
뉴질랜드	5	0	지역감염
필리핀	6	1	지역감염
캄보디아	2	0	지역감염
유럽			
이탈리아	5,883	234	지역감염
독일	795	0	지역감염
프랑스	706	10	지역감염
스페인	430	5	지역감염
스위스	264	2	지역감염
영국	210	2	지역감염
스웨덴	161	0	지역감염
네덜란드	188	1	지역감염
노르웨이	147	0	지역감염
벨기에	169	0	지역감염
오스트리아	104	0	지역감염
그리스	66	0	지역감염
아이슬란드	45	0	지역감염
덴마크	31	0	지역감염
산마리노	27	1	지역감염
체코	26	0	지역감염
이스라엘	25	0	지역감염
포르투갈	21	0	지역감염

핀란드	19	0	지역감염
아일랜드	19	0	지역감염
루마니아	13	0	지역감염
조지아	12	0	유입사례만 확인
슬로베니아	12	0	지역감염
크로아티아	11	0	지역감염
에스토니아	10	0	유입사례만 확인
아제르바이잔	9	0	유입사례만 확인
헝가리	7	0	지역감염
러시아	7	0	유입사례만 확인
벨라루스	6	0	지역감염
폴란드	6	0	유입사례만 확인
몰타	3	0	유입사례만 확인
북마케도니아	3	0	유입사례만 확인
슬로바키아	3	0	지역감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	0	지역감염
불가리아	2	0	지역감염
룩셈부르크	2	0	유입사례만 확인
안도라	1	0	유입사례만 확인
아르메니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바티칸	1	0	조사 중
라트비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리히텐슈타인	1	0	유입사례만 확인
리투아니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모나코	1	0	조사 중
세르비아	1	0	조사 중
몰도바	1	0	유입사례만 확인
우크라이나	1	0	유입사례만 확인
영 토			
페로제도	1	0	유입사례만 확인
지브롤터	1	0	조사 중
동남아시아			
태국	50	1	지역감염
인도	34	0	지역감염
인도네시아	4	0	지역감염
몰디브	2	0	지역감염
부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네 팔	1	0	유입사례만 확인
스리랑카	1	0	유입사례만 확인
중 동			
이란	5,823	145	지역감염
쿠웨이트	62	0	유입사례만 확인
바레인	56	0	유입사례만 확인
이집트	48	0	지역감염

아랍에미리트	45	0	지역감염
이라크	54	4	유입사례만 확인
레바논	28	0	지역감염
오만	16	0	유입사례만 확인
카타르	12	0	유입사례만 확인
사우디아라비아	7	0	유입사례만 확인
파키스탄	5	0	유입사례만 확인
아프가니스탄	4	0	유입사례만 확인
모로코	2	0	유입사례만 확인
요르단	1	0	유입사례만 확인
튀니지	1	0	유입사례만 확인
영토			
팔레스타인	16	0	지역감염
아메리카			
미국	213	11	지역감염
캐나다	57	0	지역감염
에콰도르	14	0	지역감염
브라질	19	0	지역감염
아르헨티나	9	1	유입사례만 확인
멕시코	7	0	유입사례만 확인
페루	6	0	지역감염
칠레	5	0	유입사례만 확인
코스타리카	5	0	유입사례만 확인
콜롬비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도미니카공화국	1	0	유입사례만 확인
영토			
프랑스령기아나	5	0	유입사례만 확인
마르티니크	2	0	유입사례만 확인
세인트 마틴섬	2	0	조사중
생바르텔레미	1	0	조사중
아프리카			
알제리	17	0	지역감염
나이지리아	1	0	유입사례만 확인
세네갈	4	0	유입사례만 확인
카메룬	2	0	지역감염
남아프리카	1	0	유입사례만 확인
토고	1	0	유입사례만 확인
기타			
일본크루즈	696	7	집단발생

*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전파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류의 기준을 따름

□ 환자 발생 2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누적 사망자수
중국	80,151명	80,270명	80,409명	80,552명	80,651명	80,695명	80,725명	(3,119명)
이탈리아	2,036명	2,263명	3,087명	3,858명	4,636명	5,883명	7,375명	(366명)
이란	1,501명	2,336명	2,922명	3,513명	4,747명	5,823명	6,566명	(194명)
프랑스	191명	212명	212명	377명	613명	949명	1,126명	(19명)
독일	157명	196명	240명	400명	639명	795명	847명	(0명)
스페인	114명	114명	151명	200명	374명	374명	589명	(5명)
미국	101명	108명	142명	158명	213명	436명	537명	(21명)
일본	268명	284명	317명	349명	408명	455명	488명	(7명)
스위스	30명	30명	37명	57명	180명	209명	264명	(2명)
영국	43명	51명	89명	115명	167명	206명	210명	(2명)
총 국가 수	75개국	75개국	79개국	83개국	87개국	91개국	96개국	
총 환자 수	86,053명	87,389명	89,258명	91,429명	94,978명	98,396명	101,780명	
총 사망자 수	3,088명	3,170명	3,246명	3,339명	3,436명	3,541명	3,758명	

* 출처: 각 국 보건당국 발표 및 WHO 통계 자료

□ 중국 성·시별 발생현황

구분	후베이성	광둥성	저장성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장시성
확진환자(명)	67,707	1,352	1,215	1,272	1,018	990	935
장쑤성	충칭시	산둥성	쓰촨성	헤이룽장성	베이징	상하이	푸젠성
631	576	758	539	481	428	342	296
허베이성	산시성 (Shaanxi)	광시좡족 자치구	윈난성	하이난성	산시성 (Shanxi)	구이저우성	랴오닝성
318	245	252	174	168	133	146	125
텐진시	간쑤성	지린성	네이멍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닝샤후이족 자치구	칭하이성	티벳
136	120	93	75	76	75	18	1

붙임3

코로나19 임신부 및 신생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부는 코로나19감염이 일반 대중에 비해 더 취약하거나 중증,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합니까?

- 현재 임신 한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과학적 정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임신부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SARS-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MERS-)를 포함한 다른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질병,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

Q2.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는 바이러스를 태어나 신생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요?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위험한가요?

- 사례가 많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Q4. 코로나19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을까요?

- 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Q5. 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하나요?

- 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하여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